

一部都市國民學校就學兒童의 保健生活에 關한 實態調査研究

具 外 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지도: 박 형 중 교수>

目 次

- I. 緒 論
- II. 調査對象 및 方法
- III. 調査成績 및 考察
 - 1. 保健生活習慣
 - 2. 食生活習慣
 - 3. 疾病罹患狀況
 - 4. 精神健康
 - 5. 性教育
 - 6. 兒童의 保健教育을 爲한 學父母들의 提議
- IV. 結 論
- 參考 文獻
- 英文 抄錄

I. 緒 論

우리 나라 교육법을 보면 總則 第1條에서 “教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 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奉仕하여 人類公榮의 理想 實現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第2條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必要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교육의 목표를 智, 德, 體三者를 포함하는 全人教育에 두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實情 하에서 과거 10여년간 우리 나라의 교육

은 소위 入試교육 또는 知識注入교육으로서 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는 아동들의 인격, 도덕면의 지도에 소홀하였고 건강 체력면에서 남의 나라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中學入試제도의 폐지, 學校體育의 振興策, 道德教育의 強化等 一連의 措置가 강구되면서 전반적인 교육계의 改編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국가장래를 위하여 극히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에 우리 나라 학동의 보건전반에 걸쳐 우리의 관심을 모아 그들이 가지는 보건의 欲敎와 必要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보건교육의 계획을 가집은 현재 第二世國民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견지에서 뿐 아니라 本然의 교육목표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우리 나라 국민학교에서의 보건 문제를 발견하고 아동의 보건 생활을 통해서 보건교육의 實態를 파악하므로 앞으로의 保健教育計劃수립과 教育內容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諸般資料를 얻을 목적으로 본 조사를 試圖하였다.

II. 調査對象 및 方法

1. 調査對象

지역으로나 생활정도등 諸條件으로 봐서 大邱市에서 中級에 속하는 공립국민학교의 아동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아동의 상황은 다음 표 1~a, 표 1~b와 같다.

표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아동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5세이며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이상이 31.1%에 불과하며 중학교 졸업이 33.1% 국민학교 및 그 이하가 35.8%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수는 평균 6.33

<표 1~a>

조 사 대 상 아 동

()안은 회송율(%)

질문지	1		2		3		4		5		6		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배 부 인 원	50	50	70	70	70	70	70	70	70	70	90	90	420	430
	840													
회 송 인 원	34	25	56	55	57	58	62	70	57	70	80	76	346	354
	700													
남, 녀 계 (%)	59 (59.0)		111 (79.3)		115 (82.1)		132 (94.3)		127 (90.7)		156 (86.7)		700 (83.3)	

<표 1~b> 조사대상 아동의 상황

특	성	응답 자	백 분 율
어머니의 연령	50 이 상	18	2.5 M=37.5
	45 ~ 49	75	10.7 S.D
	40 ~ 44	143	20.5
	35 ~ 39	298	42.7
	30 ~ 34	159	22.5
	25 ~ 29	7	1.0
어머니의교육정도	대 학 졸업	22	3.1
	고 교 졸업	196	28.0
	중 학교 졸업	232	33.1
	국 단 학교 졸업	231	33.0
	무 학	19	2.8
가 족 수	10이상	28	4.0 M=6.33
	9	37	5.3
	8	85	12.2
	7	121	17.3
	6	208	29.7
	5	174	24.9
	4	38	5.4
	3	8	1.1
	2	1	0.1
	아버지의 직업	산 업	294
공 무 원		93	13.2
회 사 원		90	12.8
교 원		74	10.6
공 업		67	9.6
의 료 원		18	2.6
노 등		12	1.7
근 인		11	1.6
교 직		5	0.7
언 론 인		4	0.6
무 직		32	4.6
생활정도	상	24	3.7
	중	452	64.4
	하	222	31.9
계		700	100.0

명으로 자녀수가 3~4명 내외가 가장 많으며, 직업분포를 보면 상업이 42.0%로 가장 많고 文化施設로 구분한 생활정도는 상이 3.7%, 中 64.4%, 下 31.9%로서 일반적으로 中流以下の 가정이 많다.

2. 調查方法

大邱 南山국민학교의 아동을 학년별로 100~140명씩 無作為 抽出하여 총 840명에게 1973년 3월 5일에서 3월 20일까지의 15일간에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답을 기입후 회송된 700명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Ⅲ. 調查成績 및 考察

1. 保健生活 習慣

아동들의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保健習慣을 조사한 건과는 표 2-a,b와 같다.

표 2-a에서 식사전과 용변후에 손을 씻는 습관은 55.7%와 59.8%에 불과하며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학교보건 지도가 지식을 實踐化하고 個別化하는 실질적인 습관형성에 큰 比重을 두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식사전에 손을 씻는 아동이 1학년에서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것은 입학 직후의 조사인 만큼, 입학초의 아동과 교사 및 자모의 관심내지 열심을 나타낸것에 불과하며 용변 후에 손을 씻는 율이 59.3%로 낮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아동이 취학이전에 가정에서 합리적인 보건생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주위에 있는 成人이 아동의 보건교육에 얼마만한 관심을 가졌으며, 어떻게 보건생활습관을 實現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양치하는 습관을 보면 몇일에 한번 하는 아동이 11.9%이며, 거의 양치하지 않는 아동이 4.3%로 16.2%가 양치를 잘 하지 않으며, 아침에 한번 양치하는 아동이 54.7%로 가장 많은데 비하여 저녁에 한번 양치하는 아동이 2.6%밖에 없는 것을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한국학동의 80%

<표 2-a>

보건 생활 습관

()은 백분율

생활습관	학 년	1	2	3	4	5	6	계
식사전에 손을씻는다.		43 (72.9)	60 (54.1)	61 (53.0)	70 (53.3)	69 (54.3)	86 (55.1)	389 (55.7)
	때로는씻고, 때로는 씻지 않는다.	16 (27.1)	46 (41.4)	50 (43.5)	61 (46.2)	57 (44.9)	68 (43.6)	298 (42.7)
	씻지 않는다.		5 (4.5)	4 (3.5)	1 (0.8)	1 (0.8)	2 (1.2)	13 (1.6)
용변후에 손을 씻는다.		35 (59.3)	67 (60.4)	72 (62.6)	72 (56.1)	71 (55.9)	101 (64.7)	418 (59.8)
	때로는 씻고, 때로는 씻지 않는다.	23 (39.0)	37 (33.3)	38 (33.0)	49 (37.1)	50 (39.4)	50 (32.1)	247 (35.4)
	씻지 않는다.	1 (1.7)	7 (6.3)	5 (4.4)	11 (8.3)	6 (4.7)	5 (3.2)	33 (4.8)
양 치 는 매일 세 번 이상 한다.		1 (1.7)	5 (4.5)	4 (3.5)	3 (2.3)	5 (3.9)	6 (3.2)	24 (3.4)
	아침, 저녁 두 번 한다.	18 (30.5)	19 (17.1)	31 (27.0)	33 (25.0)	20 (15.8)	42 (20.9)	163 (23.1)
	아침에 한번 한다.	28 (47.5)	61 (55.0)	53 (46.1)	76 (57.6)	77 (60.6)	87 (55.8)	382 (54.7)
	저녁에 한번 한다.	3 (5.1)	3 (2.7)	2 (1.7)	2 (1.5)	4 (3.2)	4 (2.4)	18 (2.6)
	몇 일에 한번 한다.	6 (10.2)	16 (14.4)	15 (13.0)	16 (12.1)	17 (13.4)	13 (8.3)	83 (11.9)
	거의 하지 않는다.	3 (5.1)	7 (6.3)	10 (8.5)	2 (1.5)	4 (3.2)	4 (2.4)	30 (4.3)
	계	59 (100.0)	111 (100.0)	115 (100.0)	132 (100.0)	127 (100.0)	156 (100.0)	700 (100.0)
목욕 은	한주일에 두번이상 한다.	5 (8.5)	6 (5.4)	5 (4.4)	7 (5.3)	10 (7.9)	6 (3.8)	39 (5.6)
	한주일에 한번 정도	23 (39)	40 (36)	34 (29.6)	38 (28.8)	52 (40.9)	56 (35.9)	243 (34.7)
	두주일에 한번 정도	24 (40.7)	45 (40.5)	48 (41.7)	58 (43.9)	55 (43.5)	72 (46.2)	302 (43.1)
	한달에 한번 정도	7 (11.9)	17 (15.3)	22 (19.1)	22 (13.6)	10 (7.9)	18 (11.5)	96 (13.7)
	2~3개월에 한번 정도	—	3 (2.7)	6 (5.2)	7 (5.3)	—	4 (2.4)	20 (2.9)
취 침 및 기상 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깬다.	26 (44.1)	44 (39.6)	55 (67.2)	60 (45.5)	48 (37.0)	58 (37.2)	291 (41.7)
	일정한 시간이 없고 자유로 한다.	20 (33.9)	36 (32.4)	41 (37.7)	42 (31.8)	42 (33.0)	56 (35.9)	239 (34.0)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그대로 안된다.	13 (22.0)	31 (27.9)	19 (16.5)	30 (22.7)	37 (29.1)	42 (26.9)	160 (24.3)
계	59 (100.0)	111 (100.0)	115 (100.0)	132 (100.0)	127 (100.0)	156 (100.0)	700 (100.0)	

이상이 증치에 이환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아동의 건강 維持增進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학교보건 교육을 통해서 증치예방을 위한 양치습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욕의 빈도를 보면 한달에 한번하는 아동이 13.7%이며, 2~3개월에 한번하는 아동이 2.9%로 16.6%가 목욕을 자주하지 않고 있다. 목욕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외에 피부호흡을 촉진시키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는데 의

의가 있다*. 뿐만아니라 어릴때 부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個人衛生上 또는 가정의 보건을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취침 및 기상에 있어서는 58.3%의 아동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불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은 수면 장애로 피로 회복과 정신 안정에 지장을 가져온다. 규칙적인 생활태도의 육성은 아동의 心身의 충분한 발달을 촉진하는 正常的인 건강생활로써 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는 아동이 깊이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부모 자신들의 질서있는 생활을 통해 자녀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또한 아동들의 가정에서의 운동습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2-b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2-b〉 운동 습 관 ()은 백분율

운동습관		성 별	남	여	계
방과후 운동을 충분히 한다			90	63	153
			(26.0)	(17.8)	(21.9)
	약간한다.		181	202	383
			(52.3)	(57.1)	(54.7)
거의하지 않는다.			75	89	164
			(21.1)	(25.1)	(23.4)
계		346	354	700	
			(100.0)	(100.0)	(100.0)
방과후 하는 운동 종목은	줄 넘 기		122	189	311
			(27.0)	(50.0)	(37.5)
	달 리 기		72	59	131
			(15.9)	(15.6)	(15.9)
	맨 손 체 조		59	54	113
			(13.1)	(14.3)	(13.6)
	공 놀 이		44	38	82
			(9.7)	(10.1)	(9.9)
	축 구		64	—	64
			(14.2)	—	(7.7)
	배 드 민 턴		27	32	59
			(6.0)	(8.5)	(7.2)
	아 령		16	—	16
			(3.5)	—	(1.9)
	야 구		16	—	16
			(3.5)	—	(1.9)
	자전거타기		10	2	12
			(2.2)	(0.5)	(1.4)
	태 권 도		11	—	11
			(2.4)	—	(1.3)
탁 구		4	3	7	
		(0.9)	(0.8)	(0.8)	
역 기		4	—	4	
		(0.9)	—	(0.5)	
배 구		1	1	2	
		(0.2)	(0.3)	(0.2)	
권 투		2	—	2	
		(0.4)	—	(0.2)	
계		452	378	930	
		(100.0)	(100.0)	(100.0)	
방과후 운동을 충분히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		33	46	79
			(14.1)	(14.7)	(14.4)
	기구나 시설이 없다.		54	46	100
			(23.1)	(14.7)	(18.3)
	장소가 없다		24	15	39
			(10.2)	(4.6)	(7.1)
친구가 없다		30	67	97	
		(12.8)	(21.5)	(17.7)	
취미가 없다		50	64	114	
		(21.3)	(20.6)	(20.8)	
몸이 약하다		3	4	7	
		(1.3)	(1.3)	(1.3)	

기 타	40	71	111
	(17.2)	(22.6)	(20.4)
계	234	313	547
	(100.0)	(100.0)	(100.0)

표 2-b에 의하면 집에서 운동을 하는 아동이 76.6%이며 23.4%의 아동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中學校入試制度의 폐지 이후 아동들이 心身의 餘裕를 갖게 된 결과라 본다. 그러나 現代生活의 文化的 興件이 운동의 自然的인 기뢰를 점차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운동은 아동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획되어야만 하겠다. 집에서 일상하는 운동은 14種目으로 줄넘기가 37.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달리기로 15.9%, 맨손체조 13.6%로 주로 하는 운동이 個人的인 體力強化에 置重되어 있어서 한창 구름을 지어 친구들과의 단체활동에 몰두할 시기에 그러한 기뢰가 적은 운동할 장소와 운동기구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한국실정으로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運動能力이 人間의 모든 活動의 基礎가 되고 그 發達에 수반해서 行動領域이 擴大하고 거기서의 經驗을 통해서 知的, 情緒的, 社會的인 發達の 促進을 꾀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屋外運動場 및 運動施設을 확장하고 단체운동, 구름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집에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로는 취미가 없다는 20.8%와 기구나 시설이 없다는 18.3%와 친구가 없다는 17.7%가 문제가 된다. 우선 아동의 發達段階에 따른 身體的 欲求'를 理解하고 아동의 운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어야 하겠다. 공동으로 운동기구를 마련하고 여러 아동이 단체경기를 통해서 競爭意識과 協力意識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體力強化 뿐 아니라 人格形成에도 바람직 하다.

2. 食生活 習慣

日常生活에 있어서 食生活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동들의 식생활 습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a, b, c와 같다.

〈표 3-a〉 식 생활 습 관 ()은 백분율

식 생활 습 관	인 원
식생활에서 문제되는 일은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한다.	77
	(11.0)
너무 먹지 않는다.	223
	(31.9)
편식한다.	198
	(28.3)
아무 문제가 없다.	208
	(28.2)

계	700 (100.0)
편식할 경우에 먹지 않는 음식은	
육 류	107 (33.2)
야 채 류	94 (29.2)
생 선 류	43 (13.4)
분 식 류	53 (16.5)
잡 곡 류	11 (3.4)
양 념 류	9 (2.8)
조 개 류	2 (0.6)
기 타	3 (0.9)
계	322 (100.0)
간식은	
많이한다.	109 (15.4)
조금한다.	512 (73.1)
거의하지 않는다.	79 (11.3)
계	700 (100.0)
간식의 종류는	
빵	425 (38.4)
과 자	236 (21.3)
과 실	215 (18.5)
사 탕	108 (9.7)
우 유	35 (3.2)
국 수	22 (2.0)
빙 과 자	14 (1.3)
생 선 목	12 (1.1)
기 타	40 (3.6)
계	1107 (100.0)
간식의 준비는	
집에서 만들어 준다.	160 (25.8)
본인이 돈을 가지고 사 먹는다.	59 (9.0)
집에서 준비하거나 본인이 사먹는다.	405 (65.2)
계	621 (100.0)

표 3~a에 의하면 너무 많이 먹으려 하는 경우가

11.0%, 너무 먹지 않는 아동이 31.9%, 편식하는 아동이 28.3%로 71.2%의 아동이 식생활 습관에서 어떠한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金²은 그의 調査에서 편식아 수를 63.7%로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조사 결과가 28.3%, 金의 조사에 비하여 低率인 것은 金의 조사가 日常主要食品을 총망라해서 조사한데 대하여 본 조사는 각 가정에서 일상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범위내에서 어머니가 主觀的으로 판단 결정한 것으로 28.3%의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이들의 편식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를 보면 肉類가 33.2%로 가장 많고 野菜類가 29.2%, 粉食類 16.5%, 生鮮類 13.4%로 주로 나타나 편식식품이 기본영양식품임에 문제가 있다. 肉類가 33.2%로 가장 많은 것은 본 조사 대상의 生活程度로 봐서 肉類를 흔하게 먹지 못하는 아동으로 추측된다. 편식식품의 야채류 중 김치가 多數였음은 자주 먹는 음식과 자주 먹지 않는 식품, 즉 兩極의 식품에서 편식경향을 볼 수 있다. 貧困으로 인한 不適切한 營養攝取가 아동의 신체 發育成長에 미치는 영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들의 主食외에 먹는 間食에 관하여 물어 본 결과는 15.4%의 아동이 간식을 많이 하고 73.1%의 아동이 간식을 조금한다. 따라서 88.5%의 아동이 간식을 하고있다. 학령기 아동의 多數가 간식을 하는데 대비해서 간식에 관한 올바른 지도가 要求된다. 간식의 종류로는 빵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과자가 21.3%이며 과실이 18.5%, 사탕이 9.7%로 빵과 과실은 권장할만 하나 과자와 사탕은 올바른 건강의 견지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우유를 간식으로 하는 아동이 3.2%에 불과한 것은 成長하는 아동들의 식생활 습관에서 시급히 계몽되어야 한다. 많은 아동들의 초원 간식이 되고 있는 빵의 질이 문제가 된다. 간식을 집에서 준비해 주는 어머니는 25.8%, 집에서 준비하거나 사먹는 아동이 65.2%이며, 본인이 사먹는 아동이 9.0%이다. 집에서 준비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이 접근처의 구멍가게에서 사먹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른들을 불러서 不規則하게 먹는 間食에 대한 바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성과 관련하여 식사의 양이 아동의 건강 특히 成長發育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을 생각하여 아침과 점심의 食事育을 조사하여 표 3~b의 결과를 얻었다.

표 3~b에 의하면 아침식사에 있어서 충분히 먹는다는 아동은 45.0%이며 8.4%의 아동이 대부분 먹지 않거나 먹기도 못하고 먹지 않기도 한다. 한편 점심 식사 경우는 63.6%가 充分히 먹는다고 하는 반면 16.8%가

<표 3~b>

아침식사와 점심식사의 상관

()은 백분율

아침식사 점심식사	대부분 먹지 않는다	먹을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다	조금 먹는다	충분히 먹는다	계
대부분 먹지 않는다.	3(12.5) (11.2)	1(4.2) (3.3)	15(62.5) (4.7)	5(2.8) (1.6)	24(100.0) (3.5)
먹을 때도 있고, 않을 때도 있다.	4(4.5) (14.8)	10(11.1) (33.1)	47(52.2) (9.5)	29(32.2) (9.5)	90(100.0) (13.3)
조금 먹는다.	10(7.5) (37.0)	5(3.8) (16.8)	98(73.7) (31.0)	20(15.0) (6.6)	133(100.0) (19.6)
충분히 먹는다.	10(2.2) (37.0)	14(3.4) (46.8)	156(36.2) (49.4)	251(58.2) (82.3)	431(100.0) (63.6)
계	27(4.0) (100.0)	30(4.4) (100.0)	316(46.6) (100.0)	305(45.0) (100.0)	678(100.0) (100.0)

不實하게 먹고 있다. 대체적으로 아침식사를 不實하게 하는 아동에서 점심식사도 不實한 아동이 비교적 많은 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에 그 원인을 찾아 是正 하도록 지도할 것이 要求된다. 또한 식사 당시의 霧圍氣가 食事의 量에 영향을 주 는가 여부를 알기 위하여 표 3~c를 작성하였다.

<표 3~c>

식사량과 식사 분위기의 상관

()안은 백분율

식사량 분위기	대부분 먹지 않고 학교에 간다	먹고 갈 때도 있고, 먹지 않고 갈 때도 있다	조금 먹고 간다	충분히 먹고 간다	계
온식구가 같이 먹는다	15(3.3) (55.6)	19(3.9) (63.3)	224(46.7) (70.9)	221(46.1) (72.5)	479(100.0) (70.6)
일부 식구만 같이 먹는 다	8(11.9) (29.6)	4(6.0) (13.3)	29(43.3) (9.1)	26(38.8) (8.5)	67(100.0) (9.9)
학교에 가는 애들만 먼 저 먹는다	4(3.0) (14.8)	7(5.3) (23.4)	63(47.7) (20.0)	58(44.0) (19.0)	132(100.0) (19.5)
계	27(4.0) (100.0)	30(4.4) (100.0)	316(46.6) (100.0)	305(45.0) (100.0)	678(100.0) (100.0)

표 3~c에서 아침식사를 온식구가 같이 먹는 가정이 70.6%이며, 일부 식구가 같이 먹는 경우가 9.9%, 그리고 19.5%의 아동은 학교가는 애들만 먼저 먹고 있다. 充分히 먹고가는 아동 305명중에서 72.5%가 온식구가 같이 먹는데 대하여 대부분 먹지 않고 가는 아동에서는 55.6%만이 온식구가 같이 먹는다. 大體적으로 온식구가 같이 먹는 경우에 식사도 잘 하는것 같다.

3. 疾病罹患狀況

어머니들이 관찰한 아동들의 질병 이환상태를 조사 한 결과는 표 4~a,b,c에 표시된 바와 같다.

<표 4~a> 자주 일어나는 질병 및 증상 ()안은 백분율

질 병 및 증 상	응 답 자
감기에 자주 걸린다.	436 (38.8)
배가 자주 아프다.	180 (15.9)
머리가 자주 아프다.	137 (12.2)
차멀미를 잘 한다.	141 (12.5)
피부병을 자주 앓는다.	101 (8.9)
코피가 잘 난다.	79 (7.0)
눈병을 자주 앓는다.	20 (1.8)
기 타	33 (2.9)
계	1127 (100.0)

표 4~a에서 아동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증상을 보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동이 3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배를 자주 앓는 아동으로 15.9%, 차멀미 잘 하는 아동이 12.5%, 머리가 자주 아프다는 아동이 12.2%, 피부병을 자주 앓는 아동이 8.9% 등을 차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호소한 아동의 질병 이나 증상을 보면 대부분이 일상 보건 생활습관과 연

<표 4~b> 아동의 질병시 치료 방법

()안은 백분율

치료방법	학력정도			계
	고졸이상	중학교 졸업	국민학교 그 이하	
의사에게 보인다	65 (29.8)	52 (22.3)	50 (20.0)	167 (23.9)
약국에서 약을 사 온다	114 (52.3)	143 (61.4)	161 (64.4)	418 (59.7)
집에서 치료한다	32 (14.7)	20 (8.6)	29 (11.6)	81 (11.6)
한약국에 간다	6 (2.8)	12 (5.2)	10 (4.0)	28 (4.0)
그냥두고 본다	1 (0.4)	5 (2.2)	—	6 (0.8)
계	218 (100.0)	232 (100.0)	250 (100.0)	700 (100.0)

런된 질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과 아동이 보건생활에 관한 지식과 습관을 充分히 理解하고 實踐하므로써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어린애가 열이 나고 아플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은 표 4~b에서와 같다.

표 4~b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학부모의 59.7%가

〈표 4~c〉 가정에서 건강지도하는데 어려운 일 ()안은 백분율

어려운 일	질병에 대한 처리 문제	영양문제	성격지도 문제	교우관계 문제	건강습관 문제	성교육문제	운동습관 문제	기 타	계
응답자	40 (5.7)	76 (10.9)	257 (36.7)	42 (6.0)	214 (30.6)	19 (2.7)	17 (2.4)	35 (5.0)	700 (100.0)

표 4~c에 의하면 가정에서 건강지도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격지도 문제로 36.7%이며 다음이 健康習慣 문제로 30.6%이다. 어머니들로 하여금 어린이의 성격지도와 건강한 生活習慣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몽 교육할 것이 필요된다.

4. 精神健康

아동들의 精神健康 및 성격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a.b.c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a〉 자녀의 성격에 대한 부모의 기대 ()안은 백분율

기 대	현재의 성격 을 만족한다	좀고쳐져야 하겠다	모르겠다	계
응답자수	149 (21.3)	499 (71.3)	52 (7.4)	700 (100.0)

〈표 5~b〉 자녀 성격에 불만족한 이유 ()안은 백분율

이 유	학 년						계
	1	2	3	4	5	6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 (0.2)	11 (1.3)	12 (1.4)	12 (1.4)	5 (0.6)	11 (1.3)	53 (6.2)
마음이 좁고 신경질 적이다.	14 (1.6)	21 (2.5)	33 (3.9)	31 (3.6)	25 (2.9)	56 (6.6)	180 (21.1)
침착하지 않고 조급하다.	15 (1.8)	33 (3.9)	36 (4.2)	34 (4.0)	40 (4.7)	47 (5.5)	205 (24.1)
말이 없고 혼자 있기 싫어한다.	2 (0.2)	11 (1.3)	10 (1.2)	19 (2.2)	18 (2.1)	16 (1.9)	76 (8.9)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이고 반항한다.	10 (1.2)	8 (0.9)	6 (0.7)	13 (1.5)	12 (1.4)	13 (1.5)	62 (7.3)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고 잘 적 응하지 못한다.	4 (0.5)	4 (0.5)	9 (1.1)	6 (0.7)	6 (0.7)	5 (0.6)	34 (4.0)
참을성이 없고 싫증을 빨리 낸다.	18 (2.1)	16 (1.9)	21 (2.5)	26 (3.0)	30 (3.5)	18 (2.1)	129 (15.1)
남자답게 활발하지 못하고 여자처 럼 유순하다.	1 (0.1)	6 (0.7)	13 (1.5)	14 (1.6)	9 (1.1)	20 (2.4)	63 (7.4)
여자답게 부드럽지 않고 지나치게 활발하다.	4 (0.5)	8 (0.9)	6 (0.7)	9 (1.1)	11 (1.3)	13 (1.5)	51 (6)
계	70 (8.0)	118 (13.7)	146 (17.1)	164 (19.9)	156 (18.1)	199 (23.2)	853 (100.0)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인다. 低學歷群의 어머니 일수록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에게 保健所 이용을 장려하고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계몽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병에 대한 처리문제를 포함하여 가정에서 어린이의 건강지도할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묻은 결과는 표 4~c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a에서 자녀의 성격을 만족스럽다고 한 어머니는 21.3%에 불과하고 71.3%의 어머니는 좀 고쳐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격면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71.3% 이상의 아동이 부모가 바라는 성격으로 形成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자녀의 성격이 바람직한 方向으로 成熟해 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우선 成熟한 成人이 되어야 하고 자녀의 發達段階에 따른 養育方法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격의 어떤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묻은 결과는 표 5~b와 같다.

표 5~b에서 가장 문제되는 성격은 침착하지 않고 조급한 성격으로 24.0%이며 다음이 마음이 좁고 신경질적인 성격 21.1%, 참을성이 없고 싫증을 빨리 내는

성적이 15.1%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있어서 아동의 個性은 날로 복잡성을 띄게되며 이때에 주위에서의 여러가지 자극에 대하여 극히 민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情緒面에서의 지도가 이들의 性格構成에 중요하며 특히 이때에 부모는 그들의 不快情緒面을 적당한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아동의 神經質의 傾向을 높이는 環境的 因子로는

물적, 지리적 환경과 가족의 상황, 형제의 순위등의 要因들 외에 부모의 性格과 부모 자녀간의 精神의 結合, 直接的으로는 家庭教育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아동들의 성격을 고치는데 주로 누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은 결과는 표 5~c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c〉 성격을 고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 ()안은 백분율

영향을주는 사람	부 모	선 생	친 구	형 제	자 신	의 사 나 가 전 문 가	기 타	무 응 답	계
응 답 자	302 (43.1)	112 (16.0)	36 (5.1)	45 (6.5)	116 (16.6)	4 (0.6)	5 (0.7)	80 (11.4)	700 (100.0)

표 5~c에서 보면 자녀의 성격을 고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가 43.1%로 가장 많고, 아동자신이 16.6%, 선생이 16.0%로 나타났다.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 부모이며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人格形成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10세~16세 사이에 內向性과 外向性의 交替가 보이고, 이것은 아동기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分化와 再統一이란

發達の 基本的 要求에 따른 것이다. 아동기에 있어서 부모의 理解는 중요하며 家庭霧圍氣등이 歪曲되어 不調和한 상태에 있는 개인을 再統合하고 건전한 그 개인의 본래의 實現 傾向을 發揮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줄로 안다.

5. 性 教 育

아동들의 男女의 性 또는 生殖문제에 관하여 질문하는 빈도는 다음 표 6~a와 같다.

〈표 6~a〉 성 및 생식문제에 관한 질문의 빈도 ()안은 백분율

빈 도	학 년	1	2	3	4	5	6	계
자 주 있 다		—	1 (0.9)	1 (0.9)	5 (3.8)	3 (2.3)	3 (1.9)	13 (1.9)
가 품 있 다		14 (23.7)	27 (24.3)	40 (34.8)	32 (24.2)	43 (34.0)	47 (30.1)	203 (29.0)
전 연 없 다		41 (69.6)	70 (63.1)	61 (53.0)	84 (63.6)	68 (53.5)	68 (43.6)	392 (56.0)
무 응 답		4 (6.8)	13 (11.8)	13 (11.3)	11 (8.3)	13 (10.2)	38 (15.4)	92 (13.1)
계		59 (100.0)	111 (100.0)	115 (100.0)	132 (100.0)	127 (100.0)	156 (100.0)	700 (100.0)

〈표 6-b〉 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안은 백분율

반응	학력정도		중학교 졸업	국민학교 상	계
	고교졸업 이	고교졸업 상			
화제를 바꾼다	14 (6.4)	16 (6.9)	27 (10.8)	27 (10.8)	57 (8.1)
헛말로 임시 변명한다	26 (11.6)	24 (10.3)	27 (10.8)	27 (10.8)	77 (11.0)
야단친다	13 (6.0)	28 (12.7)	16 (6.4)	16 (6.4)	57 (8.1)
어떻게할지 모르겠다	1 (0.5)	—	—	6 (2.4)	7 (1.0)
솔직하게 간단히 대답해 준다	45 (20.6)	39 (16.8)	39 (15.6)	39 (15.6)	123 (17.6)
무 응 답	119 (54.6)	125 (53.8)	135 (54.0)	135 (54.0)	379 (54.2)
계	218 (100.0)	232 (100.0)	250 (100.0)	250 (100.0)	700 (100.0)

표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女의 性에 관해서나 인간의 生殖에 관한 질문을 한 아동은 30.9%이며 69.1%의 아동은 질문을 한일이 없거나 있어도 어머니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서 성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에 부모의 反應을 알아본 결과는 표 6-b와 같다.

표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한 어머니는 17.6%이며 다시 학력별로 보면 高學力群이 20.6%로 低學力群보다 다소 높다. 11%의 어머니가 헛말로 임시변통하는 것은 아동에게 성에 대한 인식을 잘 못 주입하는 것이다. 82.4%가 자녀의 성에 관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이나 태도를 갖지 못하였으며, 부모가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대답을 못하거나 아동의 호기심을 억압할 경우에는 아동은 다른 곳에서

歪曲된 性知識을 가지게 될 것이다. 高學力群에서 20.6% 만이 바른 답을 한 것은 우리 나라 교육에서 당연히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게 준비 교육을 하지 않은 탓

이며, 부모 자신이 아동기에 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한 生育的 背景을 말하고 있다.

性教育에 관한 부모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6~

<표 6~c>

성 교육 문 제

()안은 백분율

학 력 정 도	교 교 출 업 상 이	중 학교 졸업	국 민 학 교 및 그 이 하	계
질 문 과 답 지				
자녀의 성교육은 주로 누가 해야하나?				
부 모	75 (34.4)	46 (19.8)	58 (23.2)	179 (25.6)
선 생	105 (48.2)	119 (51.3)	134 (53.6)	358 (51.1)
의 사	11 (5.0)	16 (6.9)	13 (5.2)	40 (5.7)
전 문 가	11 (5.0)	16 (6.9)	10 (4.0)	37 (5.3)
기 타	4 (1.8)	10 (4.3)	4 (1.6)	18 (2.6)
무 응 답	12 (5.5)	25 (10.8)	31 (12.4)	68 (9.7)
국 민 학 교 아 동 들 에 게 성 교 육 이 필 요 한 가 ?				
꼭 필요하다	7 (3.2)	14 (6.0)	16 (6.4)	37 (5.1)
어느정도 필요하다	92 (42.2)	64 (27.2)	77 (30.8)	233 (33.2)
좀 빠르다	53 (24.3)	70 (30.3)	71 (28.4)	194 (27.6)
자연히 알게될 때까지 내버려 둔다	57 (26.1)	56 (24.1)	60 (24.0)	173 (25.1)
무 응 답	9 (4.1)	29 (12.5)	25 (10.4)	63 (9.0)
어머니가 가진성에 관한교육적 지식은 어디서 얻은것인가?				
부 모	9 (43.1)	41 (4.7)	21 (8.4)	71 (10.1)
과거의 학창	28 (12.8)	15 (6.5)	24 (9.6)	67 (9.6)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	37 (17.0)	28 (12.1)	53 (21.2)	118 (16.9)
책	89 (40.8)	99 (42.7)	79 (31.6)	267 (38.1)
친 구	10 (4.6)	12 (5.2)	10 (4.0)	32 (4.6)
기 타	2 (0.9)	6 (2.6)	6 (2.4)	14 (2.0)
무 응 답	43 (15.1)	31 (26.3)	57 (22.8)	131 (18.7)
계	218 (100.0)	232 (100.0)	250 (100.0)	700 (100.0)

c와 같다.

표 6~c에 의하면 자녀의 性教育은 주로 부모가 하는 것이 옳다는 답은 25.6%이며 學力別로 보면 高學力群에서 34.4%로 低學力群에 비해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1.1%의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스웨덴의 國家性教育委員會의 1962년의 18~60才의 표본 조사에 의하면 全事例의 75%가 性教育의 責任은 주로 부모에게 있다

고 답하고 있다. 이들은 性教育은 基本的으로 부모에 의해서 해야한다고 하고 부모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학교가 低學年부터 性教育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고 있다. 미국교육연합회(N.E.A)의 性教育會의 性教育 第1集「兩親의 責任」이란 제목에서 性的 科學的 知識傳達은 學校가 하고 生活面의 性的 理解는 日常의 無意識적인 家庭生活에서 父母兄弟間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터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많은 父母들이 性教

育을 올바르게 못하는 現狀에서는 학교가 그것을 實施해야 하고 동시에 학교가 부모와 協力關係를 맺고 性教育의 對策으로 아동만이 아니고 하나의 生涯教育으로서 아동과의 對應관계에서 부모교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38.6%의 어머니가 국민학교에서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혹은 어느 程度 필요하다고 했고 불필요하다는 어머니는 無答型을 포함해서 61.4%로 나타났다. 今世紀에 들어와서 世界的 文明各國에 있어서 하나의 明確해진 現象은 發達加速現象으로 性成熟이 점차로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매스컴과 社會風潮가 拍車를 加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에서 未成熟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방관할 수 만은 없다. 사실을 아는 것은 사실을 모르고 어떤 것인가 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 보다 타격이 적은 것이다. 性的으로 거의 無知狀態인 청소년 중에 성적 체험을 갖게 되는 환율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시된 답변은 아이 자신이 답을 모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性관계는 하나의 人間關係로 접촉하는 男女間에 義務와 責

任 등 倫理的 自覺이 있어야 하고 이 자라는 性本能과 같이 人間에게 自然發生的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廣意의 教育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의 性教育은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어머니가 가진 性教育의 지식원은 책이 38.1%로 가장 많고 다음이 16.9%로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콘 등 매스컴을 통해서 얻고 있다. 학교에서 얻었다는 사람은 불과 9.6%로 우리 나라 학교교육에서 性教育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책이나 매스컴 및 부모와 친구를 통해서 얻은 성교육의 內容이나 性的概念이 바르지 못한 경우를 예상하고 보건교육의 計劃속에 성교육을 포함하므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어머니 교육 내지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兒童의 保健教育을 위한 학부모들의 제의

어린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위하여 國家와 學校 및 家庭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학 부모 의 제 의 ()인수 백분율

	국가에 바라는 일	학교에 바라는 일	학부모들이 해야 할 일
복지시설과 생활습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43 (13)	방과후 학교운동장 개방 19 (9.4)	조기운동 9 (3.7)
	교통안전과 공해방지 대책 19 (5.7)	체육시간 보강 및 보건 체조 강화 31 (15.3)	청결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19 (7.8)
	위생적 복지시설(학교난방등) 85 (25.5)	건강생활교육과 교내 위생관리 28 (13.3)	바른 생활습관 형성 69 (28.2)
식생활	합리적인 영양급식과 부정 식품단속 44 (13.3)	급식 질 향상 14 (6.9)	영양섭취 55 (22.4)
		위생급수 36 (17.7)	
질병	정기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66 (19.9)	담임선생의 건강관찰 5 (2.5)	
정신위생	부도덕한 매스컴 지향 13 (3.9)	성격지도와 교우관계 지도 23 (11.3)	가정오락 15 (6.1)
	정서교육 교과 설치 8 (2.4)	부담없는 즐거운 학교생활 38 (18.7)	자녀에 대한 관심양안 14 (5.7)
기타	적당한 학급정원 조정 54 (16.3)	개인 차별없는 공평한 지도 9 (4.4)	인격지도 29 (11.8)
			부모교육 11 (4.5)
계	332 (100.0)	203 (100.0)	245 (100.0)

질문지에 응답한 700명의 자모 중 위의 제언을 해준 자모는 225명(32.1%)이었다.

표7에 의하면 국가에 바라는 일로는 衛生福祉 施設

定期健康診斷과 예방접종, 學級定員 조정, 合理的인 營養給食과 不正食品 단속, 어린이 놀이터 설치등을 提議하고 있다. 學校에 바라는 일로는 부담없는 즐거운

學校生活環境空氣, 衛生給水, 保健體操 강좌, 健康生活 敎育과 校內衛生管理, 性格指導와 交友關係지도, 방과후에 학교 運動場開放을 提議했고 學父母가 해야 할 일로는 올바른 生活習慣形成, 營養식이, 人格指導, 몸 清潔 등을 들고 있다.

IV. 結 論

1. 要 約

1973년 3월 5일부터 2주일 동안 大邱市 남산 국민학교 아동 7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아동의 保健生活狀態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保健生活 習慣의 조사에서 식사전과 용변 후 손을 씻는 아동은 55.7%와 59.8%이며 나머지 아동은 손을 씻는 習慣이 形成되어 있지 않았다. 아침 저녁 두번 이상 양치하는 아동이 26.5%이며 아침에만 한번하는 아동이 54.7%, 저녁에 한번하는 아동은 2.6%로 齒齦豫防을 위한 양치의 개념이 不足하다. 한주일에 한번 이상 沐浴하는 아동이 40.3%이며 두주일에 한번하는 아동이 43.1%이다. 나머지 16.6%의 아동은 1~3달에 한번하는 아동이다. 規則的으로 就寢 및 起床하는 아동이 41.7%이며 58.3%의 아동은 規則生活하는 習慣이 되어 있지 않다. 방과 후 집에서나 屋外에서 運動을 하는 아동은 76.6%이며 23.4%의 아동이 運動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주로하는 運動 중에 走步가 37.5%로 가장 많고, 달리기, 맨체조등 個人的인 運動이 14種目 중에서 66.9%를 차지하고 있다. 집에서 運動을 못하는 이유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器具나 施設不足, 여자는 같이 놀아 줄 상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2) 食生活 習慣에서 31.9%의 먹지 않는 아동과 28.3%의 偏食아동이 문제된다. 偏食 食品으로는 肉類가 33.2%로 가장 많고, 野菜, 粉食, 生鮮의 順으로 모두 主要 食品임이 문제된다. 88.5%의 아동이 間食을 하고 있으며 간식의 종류는 빵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과자, 과일, 사탕이다. 25.8%는 집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먹는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의 관계를 보면, 아침을 충실히 먹는 아동은 45.0%이며 8.4%는 아침식사가 不實하다. 점심 식사의 경우 63.6%가 충실히 먹으며 16.8%는 불실하다.

대체적으로 아침식사가 불실한 아동에서 점심도 불실한 경우를 많이 본다. 아침 식사와 식사環境의 상관관을 보면 온식구가 같이 먹는 가정이 70.6%이며 나뉘어 먹는 가정이 30.4%이다. 아침을 充分히 먹고 가는 아동 중 72.5%에서 온 식구가 같이 먹는데 비하

여 대부분 먹지 않고 가는 아동에서는 55.6% 만이 온 식구가 같이 먹고 있다.

(3) 아동에게 자주 일어나는 疾病이나 症狀은 감기가 3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배앓이, 차멀미, 頭痛, 皮膚炎등이다. 아동의 罹病時에 의사에게 보이는 부모가 23.9%이며 약국에서 약을 사먹이는 부모가 59.7%로 저학력군 인수목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질병문제를 포함해서 자녀의 健康指導上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36.7%의 性格指導문제이다.

(4) 자녀의 성격에 대해서 不滿을 가진 부모가 71.3%이며 不滿을 주는 이유에 해당하는 성격은 24.1%의 침착하지 못하고 조급한 성격과 21.1%의 마음이 좁고 신경질적인 성격이다. 43.1%의 어머니가 자녀의 성격을 고치는데 부모가 주로 역할을 한다고 했으나 아동 자신이라고 답한 16.6%의 부모는 문제가 있다.

(5) 남녀의 性문제나 人間の 生殖에 관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해온 아동은 30.9%이며 자녀의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머니는 17.6%에 불과하다. 자녀의 性敎育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어머니는 25.6%이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야 한다는 어머니가 51.1%이다. 국민학교에서 性敎育이 필요하다라는 부모는 38.3%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자는 부모가 25.1%이다. 어머니가 가진 性에 관한 知識은 38.1%가 책에서 얻었으며, 16.9%가 매스컴에서 얻고, 다음이 부모, 학장, 친구, 기타에서 얻었다.

2. 提 言

(1) 李¹⁹의 調査에 依하면 아동이 6年間に 9科目을 통해서 保健과 관련된 內容을 4291회 學習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학교 6年間に 保健에 관한 知識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實踐은 이에 따르지 못했다. 앞으로의 保健敎育計劃은 保健學習에서 배운 知識과 技術을 生活化하도록 實質的인 保健指導를 強化하는 것이 期待된다.

(2) 학부모의 모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올바른 生活習慣을 위한 家庭敎育 내지 人格敎育을 高調함과 同時에 이를 具體的인 內容으로 한 成人敎育 및 父母敎室이 마련되어 아동과 함께 부모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하겠다.

(3) 女性敎育에서 특히 母性 敎育을 強化하고 精神健康 및 性에 관한 바른 意識을 高調하는 精神健康의 立場에서 자녀에게 性敎育 내지 人間敎育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어머니의 準備敎育을 도모하는 일이 期待된다.

參 考 文 獻

1. 金命鎬, 學校保健, 서울: 壽文社, 1970.
2. _____, 金玉賓, 保健教育, 서울: 壽文社, 1970.
3. 波多野完治外, 兒童心理學ハンドブック, 東京: 金子書房, 1971.
4. 高野清純, “欲求と動機” 兒童心理學講座⑥, 東京, 金子書房, 1971.
5. 金斗重, “國民學校兒童偏食狀況에 관한 調査”,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1.
6. 高木俊一郎, “兒童の感情・情緒障害と指導” 兒童心理學講座⑥, 東京: 金子書房, 1972.
7. Norromore, C. M., How to tell your children about sex,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1.
8. 笠間達男 “外國に見子書性のいげ” 兒童心理 27卷 1號, 東京: 金子書房, 1973.
9. 前田嘉明, “性的成熟と性のいげ” 兒童心理, 27卷 1號, 東京: 金子書房, 1973.
10. 李花子, “國民學校 國定教科書 內容中 保健教育에 關한 調査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7.
11. 權彝赫, 公衆保健學, 서울: 申明社, 1969.
12. 박준희 外, 성교육, 서울: 교육출판사, 1971.
13. 서봉연 外, 정신위생, 한국응용심리학회지, 서울: 공신문화사, 1972.
14. 大西誠一郎, 親子關係の心理, 東京: 金子書房, 1971.
15. 波多野完治外, “成長と發達” 兒童心理學講座 D, 東京: 金子書房, 1970.
16. Grout, R.E., Health teaching in schools. Fourth Edition, W.B. Saunders, Philadelphia and London.
17. 重松敬一外, PTA事典, 第一法規出版, 1967.

= ABSTRACT =

A Study on Health Aspects of Daily Lif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an Urban Area

Goo, Way Haeng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objectives to collect the basic informations on the health behaviors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an urban area in Korea. Seven hundred students were drawn to fill in the designed questionnaire which carries variety of questions on health related behaviors in general, eating habits, disease history, mental health, and sex education. Questionnaire were filled in by their paren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① 55.7% had habits of washing the hands before eating whereas 59.8% washing their hands after toilet. The others had no idea of washing hands before eating and after toilet.
- ② 26.5% had habits of brushing the teeth twice a day 54.7% only once in the morning, and 2.6% once only in the evening. Thus, the idea of prevention from decayed teeth seems to be lacking among the school children.
- ③ Bathing habits were also inquired to get 40.3% of bathing more than once a week, 43.1% once every two weeks, and the rest of 16.6% once every one to three months.
- ④ 41.7% keep the regular bedding time whereas 58.3% irregular. Physical exercises were conducted by 76.6% on the ground while 23.5% did not practice any physical exercises at all. Of those physical exercises, rope skipping occupied 37.5%, and the other 66.9% consisted of 14 different kinds of individual type physical exercises such as gymnastic exercise. The main reasons for not enjoying exercises were different by sex; boys largely complained the inadequacy and lack of gymnastic facilities and girls felt in short of friends who could join the exercises.
- ⑤ 31.9% of the school children had been taking not much of food while 28.3% had unbalanced diets. Of these unbalanced diets, meat occupied 33.2% to be the priority to have an order of the following items such as vegetables, bread or noodle, and fishes as next to each. For eating habits, 88.5% take simple snack such as bread (38.4%, cookies, fruits, and candies in order. 25.8% of the children were provided such snacks by their parents regularly. Breakfast was sufficiently taken by 45.0% whereas 8.4% had never sufficiently. As to the lunch, 63.6% had sufficiently while 16.8% insufficiently. 70.6% take breakfast with all family members together and 30.4% separately. Correlation of sufficient taking of breakfast and eating together of the family members seems to be significant when we compare 72.5% of sufficient takers who enjoy breakfast together with the family members with 55.6% of insufficient takers who enjoy it with the family. This finding allows the investigator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table circumstances for children's eating.
- ⑥ The most common disease was catching a cold (38.8%), and the second was stomach trouble to be followed by the frequency of car sickness, headache, and skin infection. Doctors are consulted only by 23.9% when they are sick whereas 59.7% resorted to the drug stores. The low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parents, the lower the rate of visiting clinics.

- ⑦ 36.7% of their parent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personality guidance as the most difficult thing at home. 71.3% of their parents worried about and unsatisfied with their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Of these complains of the parents, impatience stood at the top to be tabulated at 24.1%, and 21.1% indicated narrow-mindedness. In line with this primary socialization at home, the most crucial problem seems to be related with the lack or recognition of the parents' own role when we find only 43.1% of the parents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their own role for the home education of children; the latter group attributed the responsibility of personality formation to the children themselves.
- ⑧ As to the sex educational aspects, 30.9% of children have ever asked about the physiology of reproduction or sexual matters to their parents, of those parents only 17.0% could give the constructive responses to the inquiries of the children. In comparison with these data, 25.6% recognized their own role in sex education for their own children while the large segments of the parents (51.1%) attributed the responsibility of sex education to the low level of 38.3%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x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25.1% of the parents insisted to wait until they get to know naturally about sex. 38.1% of the parents said they had some knowledge on sex from books while 16.9% through mass media. The next groups had common senses of sex from their own parents, schools, friends, and other sources.